바람 부는 숲에서 '마음'을 보다

이종송 '숲의 춤(Dance of the Forest)' 展
한벽원미술관 4월 5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산수화·조형·영상 등 50여 점
느낌·사실성 모두 충실
흙벽화와 프레스코 기법 점목
나무·숲 움직임 춤으로 표현


이종송 作 'Dance of the Forest' 91×95, 2018

한국 산수화의 지평을 넓혀온 이종송의 전시가 한벽원미술관에서 4월 5일까지 열린다. 이 작가는 전통 흙벽화와 서구의 프레스코 기법을 30여 년 동안 연구하여 자신의 현대적 기법으로 표현해왔다.

이번 전시의 출품작은 이전 작업과의 연결성이 뚜렷한 작품들로, 드로잉과 조형물, 판화, 영상물, 새로 작업한 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종승은 1990년대 초부터 '움직이는 산'을 테마로 한 산수화의 창작에 매진해왔다. 1990년대 중반까지 그의 작품은 지금의 그림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추상성이 매우 강한 그림이었다.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운 기하학적 형태, 먹의 농담과 번짐의 활용, 입체적인 나무판을 이용한 부조적인 화면 등은 당시 그의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그의 작업은 보다 자연주의적으로 변모했다. 실제 풍경에서 받은 감흥을 편안한 시각과 필치로 그리기 시작했고, 이를 특유의 흙벽화 기법에 접목시켰다. 이후 그의 작품은 자신의 마음 한 부분을 풀어낸 듯이 편안해졌고,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담기 시작했다. 온 우주의 이치와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자연을 끊임없이 접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이를 화폭에 담아냄으로써 정형화되고 박제화 되지 않은, 살아 숨쉬는 또 다른 자연을 재현하고자 했다.

이번 전시의 출품작 역시 이전 작업과의 연결성이 뚜렷하다. 주변의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자연을 작가 특유의 긍정적인 시각으로 질박하면서도 화사한 벽화 기법으로 그려내고 있다. 자연에서 받은 감흥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면서도 시각적 사실성만을 지향하지 않는 이 작가는 겸재 정선의 그림과 닮아있다. 정선 역시 실제 경치를 다루되 그 경치를 눈에 보이는 그대로 다루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느낀 바에 따라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생략할 것들은 생략했으며, 변형시켜야 할 것들은 변형을 시도했다. 이 역시 이종송의 그림과 궤를 같이 한다. 그 느낌을 최대한 살리되 실제 경치를 그린다기 보다는 경치로부터 받은 감흥을 산과 물, 나무의 모습을 빌어 표현하는 것이다.

"난 느낌이 없으면 사생하지 않습니다. 느낌이 나로 하여금 스케치북을 펼치게 만들 뿐이죠.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바로 현장에서 사생할 때입니다."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 작가이지만 그는 자연의 원래 형태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한 생각은 그의 그림에 그대로 투영되는데, 그의 작품이 꼼꼼한 세필로 그린 풍경화나 천연색의 사진보다 더 자연답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이번 신작에서는 춤추는 자연의 모습이 새롭게 등장한다. 과거 그의 작품은 '움직이는 산', 즉 순환하는 자연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작가의 시선과 감흥이 응축된 것이었다. 이번 그림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의 춤이 테마로 등장한다. 작가는 바람 부는 숲의 움직임에서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다. 작가는 나무의 움직임과 숲의 움직임을 함께 표현했다. 산이 숲이 되고 숲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사람이 되는 생명의 순환 고리를 보여준다. 화면 속에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듯한 나무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흥겹게 춤을 추는 나무는 나무가 아닌 사람으로도 보인다. 시각적으로 남성, 여성의 실루엣이 느껴지기도 한다. 작가는 어느 날 현장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사생하던 중, 묘하게 자연과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오랜 시간 자연 안으로 들어가 있었던 덕분에 상당 부분 동화가 된 듯하다. 실제로 그의 곁으로 야생동물들이 별 두려움 없이 다가오기도 했다고 한다. 일종의 '자연과의 합일'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춤추는 나무, 춤추는 자연의 모습은 바로 작가의 이러한 당시의 감흥의 표현이다. 이제 자연에서 받은 느낌을 그리는 것을 넘어서 자연과 하나 된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춤추는 나무의 모습은 자연의 모습이기도 하고, 작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종송 화백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회화과에 재직 중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초·중·고 미술 교과서에 그의 작품이 수록되어있다. 40여 회의 국내외 개인전과 200여 회의 국내외 단체전에 출품했다.

동산불교대학 불화전

'미래의 빛 붓다' 展 4월 4일~10일 경인미술관


문미영 作 '책가도'.

동산불교대학(학장 법산)은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제6회 불교학과 불화전시회 '미래의 빛 붓다' 전을 인사동 경인미술관 1관에서 개최한다.

동산불교대학의 불교미술학과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서 문화부 장관상 수상을 비롯하여, 불미전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명실공히 실질적인 불교미술의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미래의 빛 붓다'라는 제목으로 19명이 불심으로 그린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4m가 넘는 대형 괘불과 불미전 수상 작품들도 함께 전시된다.(문의-733-4448)

한편 동산불교대학에서는 불교미술학과 3년 과정 외 15주 과정의 문화강좌 '궁중민화반'을 개설했다. 기초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단계별(120시간/년) 지도하며 수료증을 발급한다. 내용은 ▲초급반/ 연화도, 모란도, 수복글씨 등 ▲중급반/ 어해도, 송학도, 책가도, 봉황도, 십장생도 ▲고급반/ 일월곤륜도, 산수도, 운룡도, 십장생도이다. 대상은 민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며, 4월 6일(금) 개강한다. (문의/ (02)732-1206) 박재완 기자

카메라 앵글에 담은 '경주풍경'

4월 15일까지 엑스포문화센터


한명래 作 '칠불암과 행자승'

(재)문화엑스포는 경주엑스포공원 2018 시즌오픈을 맞이해 '경주 사진작가들의 경주풍경전'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엑스포문화센터 1층 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경주 사진작가협회 및 예당사진동우회 회원 등 경주지역 사진작가 25명이 참여해 첨성대, 불국사, 반월성 등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과 명소들을 찍은 풍경사진과 함께 화엄사, 주산지, 안면도, 회룡포 등 전국 명소의 풍경사진을 더해 총 5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재)문화엑스포 이두환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이번 전시는 엑스포공원이 지역 작가들에게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외지 관광객들에게 경주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봉축음악회 '스님이 부르는 부처의 노래'

4월 22일 오후 4시
국립중앙극장 KB하늘극장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은 불기 2562(2018)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봉축음악회 '스님이 부르는 부처의 노래'를 4월 22일 오후 4시 국립중앙극장 KB하늘극장에서 개최한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음악원이 주관하는 이번 음악회는 음성포교 일선에서 전법에 진력하고 있는 스님들이 꾸미는 음악회로 불교음악원의 5번째 기획공연이다.

1부는 불교의식음악을 주제로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과 어산작법보존회가 출연하여 범패와 작법을 시연한다.

2부는 시인이며 복지로 포교하고 노래하는 원경 스님의 무대로 시작하여 실험적인 문화포교를 지속해온 자명 스님, 수화포교에 앞장서온 해성 스님, 30년 이상 찬불가로 음성포교에 나서고 있는 정율 스님, 노래를 통해 대중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도신 스님이 출연하여 찬불가를 선보인다.

박범훈 원장은 "불교음악은 스님의 음악이며 불자들의 음악이다. 지금까지 불교음악은 스님이 중심이 되어 전승되고 있으며, 원효 스님의 '무애가', 균여 스님의 '보현십원가', 진감 스님의 '범패', 백용성 스님의 '찬불가운동' 등 불교음악의 역사는 스님들이 만들어낸 것이다"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정운문 스님을 비롯하여 많은 스님들이 찬불가를 부르며 교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는 이러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공연의 취지를 밝혔다. 김회경 불교음악원 음악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연주는 봉은국악합주단, 합창은 불교음악원 혼성합창단과 부다스합창단이 공연한다. 문의/(02)3218-4866.

박재완 기자



세계불교도의 정법수호연대 발족
한국불교의 380여 종단 최고 고승 및 지도자
대종사. 종사들의 법석

한국불교 지도자들 중에 종단을 불문하고 대종사. 종사 품수를 받은 모든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불교 최고 지도자들의 법석을 통해 서로 상호간에 상견례와 대의를 위해 한국 대종사. 종사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구촌 중생교화, 교육, 중생구제, 인간방생을 통한 세계가 하나 됨을 실천하며, 세계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정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미얀마 대사님을 모시는 뜻 깊은 법석에 큰스님께서 자리를 함께하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고 중생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명예총재 : 금산 큰스님. 총재 : 목탁 대승정
재가자국제교류불자회 국제붓다평화봉사단
준비위원 : 혜승. 혜선. 성각. 정오. 청운. 심오. 법산. 상운. 대공. 법운. 송운. 송몽. 묵하
봉행위원장 혜정 대종사
대 회 장 인경 대종사

■ 일 시 : 2018년 4월 24일 10시 30분 정각 ■ 장 소 : 용산 백범기념관

주최 : 한국불교정법수호연대. 한국불교 대종사, 종사 연합협의회 | 후원 : 법인 세계불교법왕청.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문의 : ☎ 02)733-5665. 010-3618-6061 / 팩스 02)733-5615

※ 자리 배석 관계로 미리 참석여부를 문자 및 전화로 신청바랍니다.